보 도 자 료

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6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9.(수) 오후 15시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6. 18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원주 과장(044-203-4210)	담 당 자	이재석 서기관(044-203-4211) 한종호 사무관(044-203-4212)
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천재호 과장(044-215-4530)		이윤범 사무관(044-215-4531)
	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천범산 과장(044-203-6883)		김홍오 사무관(044-203-6313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송상훈 과장(02-2110-2960)		박현진 사무관(02-2110-2962)
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하헌제 과장(044-202-7269)		박신원 사무관(044-202-7272)
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(042-481-4537)		이호중 사무관(042-481-4543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(02-2100-2867)		이한샘 사무관(02-2100-2861)
	조달청 혁신조달과 안태석 과장(042-724-7305)		전연수 사무관(042-724-7203)
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정연우 과장(042-481-5168)		유용신 사무관(042-481-5170)

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

▸ **"세계 4대 제조강국" 도약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**

❶ **스마트화, 친환경화, 융복합화**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

❷ **신산업**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,
기존 **주력산업**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

❸ 산업생태계를 **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**

❹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**정부** 역할 강화

▸ 대통령 주재 **"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"**를 통해
제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

〈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 〉

❶ **AI 국가전략 수립, AI 팩토리 2천개 구축** 등 산업지능화 본격 추진

❷ **클린팩토리** 대대적 확산, 산단을 **청정제조산단**으로 탈바꿈

❸ 3대 핵심 신산업(미래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)에 **정부 R&D 8.4조원 투자** (예타중)

❹ **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** : 디자인, 엔지니어링, 설계 역량 강화

❺ **100대 핵심소재·부품·장비** 기술개발에 **매년 1조원** 투자 (예타 추진)

❻ **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** : 신산업창출 및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

❼ **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 :**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(5천억원)

-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(現 1.5조원 → '25년 2조원)

❽ 중장기 산업비전·수요예측에 따라 **범부처 "산업 인재양성 로드맵"** 수립

❾ 고난도 과제 도전 R&D **알키미스트 7천억원으로 확대**

❿ 국적에 관계없이 **국내 투자**에 대해 **세제 등 과감한 지원**

⓫ **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** 수립

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수립 배경 】

□ 정부는 우리 **경제의 근간**이자 **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**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,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,

○ **제조업 부흥**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「**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**」을 발표하였다.

□ 최근 4차 산업혁명, 환경규제 강화,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,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·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○ 이에, 작년 12월 「**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**」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**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**한 바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
○ 이에 따라,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**'양적·추격형'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**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**기업, 협단체, 민간 전문가의 의견**을 폭넓게 수렴하면서,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,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**미래를 전망**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, **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·분석**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.

【 비전 및 목표 】

□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,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%에서 **선진국 수준인 30%**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,

○ 제조업 생산액 중 **신산업·신품목 비중**을 **16%에서 30%** 수준으로 높이고, **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**으로 확대하여, **"세계 4대 제조 강국** (수출규모기준)**"**으로 **도약**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.

【 추진전략 】

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한다.

1 스마트화, 친환경화,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.

❶ (스마트화) 스마트공장,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**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**한다.

▪ '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, '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.

▪ 연내에 **AI 국가전략 수립**, '30년까지 **AI 팩토리 2천개 구축**, 「(가칭) 제조업 혁신 특별법」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**AI 기반 산업지능화**를 본격 추진한다.

* (섬유) 동대문 봉제 공동 수주생산 모델 (의류산발) 스피드 팩토어(팩토라스토어), (조선) 스마트 조선소 구축

▪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,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/W, 로봇, 센서,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.

* (스마트공급산업) 솔루션 + 장비(로봇, 센서) 기술개발 및 표준화(범부처 예타 추진)

❷ (친환경화)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.

▪ 친환경차, 선박, 공기산업, 에너지신산업 등 **친환경 시장 선점**을 위해 **기술개발, 인프라 구축, 수요창출**을 병행 지원한다.

* (전기·수소차) R&D 3,856억원('20~'25) / '22년 누적 전기차 43만대, '30년 수소차 85만대 보급

* (LNG·수소추진선) R&D 6,000억원('21~'30, 예타 추진) / '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창출 목표

▪ 철강, 뿌리 등 사업장에 **클린팩토리를 도입**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,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 (산업계 미세먼지의 80% 배출)은 **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**시킨다.

❸ (융복합화) 제조업과 서비스업,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.

-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, 스마트 의류, 스마트 가전,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**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**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.
- **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**를 통해 융합 제품·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, 모빌리티 서비스,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.

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,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.

❶ (신산업)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한다.

- 신산업 분야별 **중장기 기술로드맵**을 제시하고, **민관합동 대형 R&D**를 추진한다. 특히, **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**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**민간의 대규모 투자**와 **정부의 마중물 역할**을 통해 **제2의 메모리 반도체**로 육성해나간다.

  * 민간 '30년까지 180조원 투자 + 정부 R&D 8.4조원 지원(예타 추진)

-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, **선제적 인프라 구축** 및 **제도 정비**를 병행하여 **신산업 성장기반**을 조성한다.
- **혁신적 신기술**에 대해 정부는 **표준화전략 수립**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.

  * 전기·수소차, 로봇,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

- 빅데이터 플랫폼, AI 허브, 5G 네트워크 등 **DNA**(Data, Network, AI) **인프라를 집중 구축**한다.

  * AI 알고리즘, 컴퓨팅 파워 등을 지원하는 AI 허브 구축
  * 「5G+」 전략을 통해 5G기반의 퍼스트무버형 신산업·서비스 창출

❷ (주력산업)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.

-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**고부가가치 유망 품목**으로 전환한다.

  * **(초격차)**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 →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
    - 차세대 메모리,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, Micro-LED, 비리튬이차전지 등
  * **(재도약)** 자동차·조선 → 소재·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+ 친환경, 스마트화 전환
    - 스마트자동차, 전기차·수소차, 자율운항선박, 전기·가스추진선 등
  * **(탈바꿈)** 섬유·의류·가전 →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
    - 스마트의류, 고감성·고기능의류, 산업용섬유, 공기산업, 스마트가전 등

- 디자인,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-서비스 융합을 위한 **'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'**를 추진한다.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, **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**을 신설하며, **'제조 + 디지털설계·디자인'**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.

❸ (소재부품장비)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.

- **「소재·부품특별법」**을 전면 개정하여, **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**하며, **100대 핵심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**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.(예타추진)
-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**'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'**을 구축, 소재·부품의 물성·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하여, **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**한다.

  * 금속, 화학, 세라믹, 섬유,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추진

- 소재·부품·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**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**하며,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**"글로벌 가치사슬" 진입을** 지원한다.

  * (공공) 금속, 화학, 세라믹, 섬유 Test-bed, (민간) 가전, 자율차, 전기차 대기업 Test-bed
  * 신뢰성 보증 도입, 6대분야 수요-공급기업 협의회 운영, 주요국 밸류체인 진입 거점 설치

❹ (사업재편)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한다.

- **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**(現 1조원)**하고,** 필요시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한다.
- 「기업활력법」을 개정하여, 지원대상을 **신산업 분야까지 확대**하고, 기업의 **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**을 지원한다.
-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·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, 재기 지원 등 **혁신안전망을 확충**한다.

❺ (산업단지) 산업단지를 대개조하여,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한다.

- 금년 중에 **"산업단지 대개조 계획"**을 수립하여, 스마트·친환경·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, **입주가능 업종 규제**를 **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**하여 **대폭** 규제 완화한다.
- 기업, 연구·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**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**한다.

* (용인) 반도체 클러스터(50개 중소기업 입주), (송도) 바이오클러스터(70개 기업 입주)

❻ (수출)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확대하며, 수출지원을 강화한다.

-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**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**을 **배출**해나간다.

* 수출멘토링(KOTRA), 브랜드구축, 지재권 관리, 인증, 무역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 지원

- **제조 중소·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**을 단계적으로 **5천억원 규모**로 확대 개편한다. 아울러,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**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**를 위한 **'특별계정'**을 운영한다.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.(現 1.5조원→'25년 2조원)

▸ 자본금 규모('17末 기준) : (네) 20억불, (獨) 33억불, (中) 55억불, (日) 72억불

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.

❶ (사람)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한다.

- **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**으로,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.
-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**"산업 인재양성 로드맵"** 수립을 추진한다.

*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 협의체인 '사람투자·인재양성협의회'를 통해 로드맵 추진

- **교육훈련기회 개방**으로 **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**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.

*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 도입, 온라인공개수업 등 개방·공유형 학습 기회 확대 등

❷ (기술) 도전, 속도, 축적에 기반하여 R&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.

- '파괴적 기술'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**고난도 과제 도전 R&D를** 확대한다.

*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('19) 100억원 → ('30) 7천억원(예타 추진)

-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**기술획득(플러스 R&D)을 폭넓게 인정**하며,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**기술 축적 시스템**을 마련한다.
- 특허·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**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**을 금년 8월에 수립한다.

❸ (금융)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·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.

-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**'초대형 민간 펀드'**를 조성하기 위해,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한다.
- 이와 함께, **제조 창업 활성화, 스케일업 전용펀드**(12조원, ~'22)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.
-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**3년간 10조원** 규모의 **초장기 자금**(최대 15년)을 안정적으로 공급(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)하며,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**규모를 추가 확대**(+2.5조원)한다.

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.

❶ (투자)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한다.

- 첨단기술, 신산업, 위기·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**세제지원을 확대 강화**하며, **내·외국인 투자**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**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**한다.

- 신산업 R&D 및 설비투자, 주력산업 구조개편,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**세제 지원을 강화**한다.

  * 바이오헬스,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,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이행 세제지원 지속
  * 신성장동력 R&D,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술 확대
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,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, 「유턴기업지원법」 및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.

❷ (공공조달)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,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.

- 금년 중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**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**한다.

  * 각 부처가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

- **혁신제품 공공조달**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, **경쟁적대화 입찰**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.

- **스마트 시티, 스마트 산단**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.

❸ (추진체계)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.

- 범부처, 민간 참여 **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**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·점검한다.

【 우리 제조업의 변화 모습 】

□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 된다.

○ **제조업 부가가치율**은 선진국 수준(25→30%)으로, **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% 이상** 높아진다.

○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며(573 → 1,200개社),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**신산업·신품목 비중**이 약 2배 증가한다(16 → 30%).

□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.

○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친환경모빌리티(미래차, 친환경선박)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다.

○ 또한, 차세대반도체, 첨단가공장비, 이차전지, 고부가철강,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.

【 비전 선포식 및 향후 계획 】

□ "**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**"은 내일 산업단지 현장에서 "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"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**"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"에서** 발표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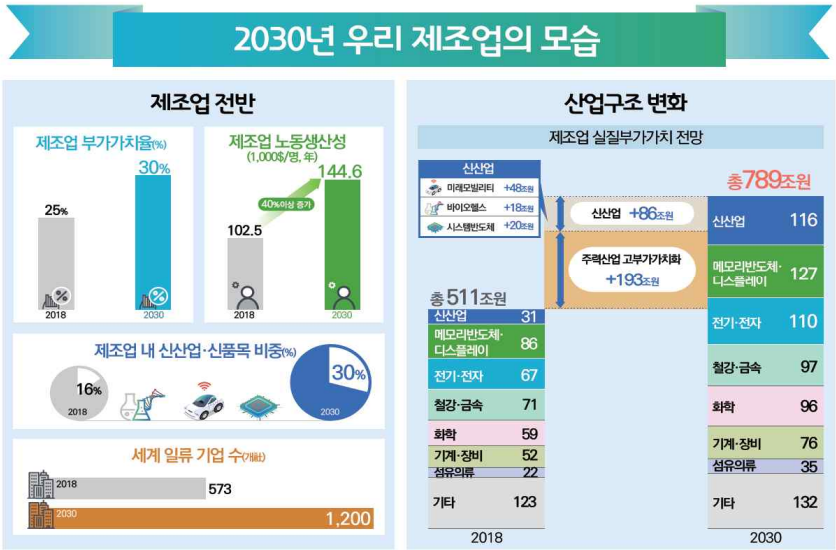
○ 이 자리에는 관련 정부부서는 물론 세계일류기업,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,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**"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"**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,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,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재석 서기관(☎ 044-203-4211), 한종호 사무관(☎ 044-203-42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 주요내용





참고 2 세계일류상품 우수사례

고영테크놀러지 (중견기업)

- 업 종 : 반도체장비
- 대표 제품 : 3차원 납 도포 검사기 (세계시장 순위 1위)

- 2002년 자본금 10억원으로 창업
  "세상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자"
- 1년여 간 연구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3차원 납 도포 검사 장비 출시
  - 2차원 장비에 비해 불량률 70% 감소, 공정 간소화, 생산성 극대화
- 3차원 전자부품 검사 장비 분야 11년 연속 세계 시장 1위
- 2018년 기준 매출 2380억원, 직원 350여 명

쎄믹스 (중소기업)

- 업 종 : 반도체장비
- 대표 제품 : 웨이퍼 프로버 (세계시장 순위 3위)

- 2000년 창업
  - LG산전 연구소 책임연구원 출신이 실직 후 동료 3명과 함께 설립
- 12인치 웨이퍼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
  - 국내 수요처가 단 두 군데 → 납품 어려운 상황
  ※ 다행히, 기술력 인정받아 대만 반도체 업체와 극적 거래 (17대 최초 수출)
-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시 회사 매각 → 추후 다시 인수
- 현재 미국, 프랑스, 싱가포르, 대만, 중국 등에 수출 (수출이 매출의 70%)
- 2018년 기준 매출 598억원, 직원 120명

오케이에프
(중견기업)

▶ 업　　종 : 식품
▶ 대표 제품 : 알로에베라 음료 (세계시장 순위 1위)

- **1990년 창업**
  - 김치, 김, 삼계탕 등 수출 시작
  - 초기 5개 하청공장에서 제품 생산
- **해외 주문 급증 → 수출 물량 확보 애로**
  → 축구장 10개 크기의 생산 공장 준공 (세계 최고 수준)
  - 투자비 1300억원대
  - 12개 메인라인, 7개 서브라인
  - 일 800만병, 연 30억병 이상 생산
- **2018년 기준 매출 2600억원, 직원 320여명**

코맥스
(중견기업)

▶ 업　　종 : IT
▶ 대표 제품 : 비디오 도어폰(세계시장 순위 2위)

- **1988년 설립**
  - 인터폰과 도어폰(국내 최초 개발)으로 사업 시작
- **좁은 내수시장에 한계 느껴 수출 판로 개척**
  - 창업 5년 만에 미국, 영국, 가나 등에 수출
  - 현재 130여 개 국가에 수출 중
- **해외 120개국 137개 에이전트와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**
- **2018년 기준 매출 1432억원, 직원 207명**
  - 연매출 10% 연구개발에 투자, 직원의 25% 연구인력

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
(중소기업)

▶ 업　　종 : 방송장비 제조업
▶ 대표 제품 : 이동체용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(세계시장 순위 2위)

- **2004년 창업**
  - 고등학교 절친이 개발한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바탕으로 설립
- **해양전자장비 1위 업체인 영국 레이마린사와 거래 시작**
  ※ 2011년 해상용 초고속 통신 안테나 개발해 영국 인마샛(세계 1위 위성통신기업)에 납품
- **2008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시에도**
  100억원 규모 공장 준공
- **인마샛, 카니발** (세계 1위 크루즈 선사), **쉘** (세계적 석유회사) **등에 납품**
- **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로켓에 이 회사 제품 사용** (2016년)
- **2018년 기준 매출 985억원, 직원 358명**

바텍
(중견기업)

▶ 업　　종 : 의료기기
▶ 대표 제품 : 전산화 단층 X선 촬영장치 (세계시장 순위 1위)

- **1992년 직원 30명으로 출발**(산업용 엑스레이 장비)
  - 10년 간 성과 없어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분야로 업종 전환
- **2003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파노라마 장비 개발**
- **세계 최초 인공지능(AI) 기반 치과 진단용**
  소프트웨어 개발(덴탈 이미징 세계 1위)
- **중국 치과 체인 등 세계 90여개국 유통망 확보**
- **2018년 기준 매출 2188억원, 직원 330여 명**

비츠로셀
(중소기업)

▶ 업　　종 : 전기
▶ 대표 제품 : 리튬 일차전지 (세계시장 순위 3위)

☑ **전신은 대우전자 자회사 테크라프**
- 대우그룹 부도로 2002년 비츠로 그룹에 편입, 이후 비츠로셀로 사명 변경

☑ **2017년 충남 예산 공장 화재 → 2개 공장 전소**
- 생산 공장, 연구개발 부서, 품질관리 등 대부분의 공간 불에 타버림
※ 바이어 이탈 막기 위해 4개월 간 해외 출장, 국내에 간이 공장 확보, 공장 재가동까지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지급 등 특단의 조치

☑ **2018년 충남 당진에 새 공장 '스마트캠퍼스' 준공**
- 1000억원 투자, 화재 이전 수준 회복

☑ **2018년 기준 매출 1126억원, 직원 355명**

제우스
(중견기업)

▶ 업　　종 : 디스플레이 장비
▶ 대표 제품 : FPD용 플레이트형 열처리장치 (세계시장 순위 1위)

☑ **1970년 제우스콤이란 무역회사로 시작**
- 1981년 반도체 사업으로 사업 분야 확장

☑ **2009년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J.E.T 인수 등 사업다각화 → 2012년 '퍼펙트스톰'이라 불리는 반도체 업계 위기 극복**

☑ **2011년 태양전지 · 디스플레이 부문 집중 육성**

☑ **2018년 기준 매출 3047억원, 직원 570여명**

유진로봇
(중소기업)

▶ 업　　종 : 기계
▶ 대표 제품 : 로봇청소기 (세계시장 순위 2위)

☑ **1988년 설립**
- 설립자 신경철 박사는 미국 미시건대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산업용 로봇개발 업무 진행했으나 부족함 느껴 창업 (설립 후 산업용 로봇에 집중)

☑ **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산업용 로봇 수요 급감 → 개인 서비스 로봇 분야로 전환**
※ 유아교육로봇, 청소로봇 등 출시하며 도약 발판 마련

☑ **2017년 독일 밀레사로부터 520억원 투자 유치**
- 연구개발에 사용해 로봇 개발 집중

☑ **카메라 내비게이션 · 와이파이 앱 ·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탑재한 로봇 시리즈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**

☑ **2018년 기준 매출 508억원, 직원 140여명**

바디텍메드
(중소기업)

▶ 업　　종 : 의료기기
▶ 대표 제품 : 감염증 진단용 C-반응 단백질 형광 면역 진단기기 (세계시장 순위 2위)

☑ **1998년 바디텍으로 출범해 2002년 상호 변경**
- 전립선암 키트로 사업 시작
- 벤처붐 꺼지면서 경영난으로 회사 매각까지 검토

☑ **끈질긴 연구개발과 바이어 발굴로 중국에 100만 달러 수출(전립선암 키트)**
- 이를 발판으로 다른 국가에도 병원용 진단 제품 수출 시작

☑ **디지털과 IT(정보기술)를 접목한 스마트생산 시스템으로 BT(바이오기술)-IT 융합 분야 선두주자**

☑ **2018년 기준 매출 565억원, 직원 285명**